

13. 조선후기의 회화(2)-진경산수화의 유행

1. 진경산수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2. 조선후기 진경산수화를 창안한 정선과 이를 추종한 정선파 화가들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3. 개성적인 진경산수화의 세계를 펼친 화가들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1. 진경산수화의 개념:

조선후기에 크게 유행한 우리나라의 승경을 묘사한 산수화. 우리나라에 실재하는 경관(景觀)을 남종화에 바탕을 둔 정선 특유의 화풍으로 그린 산수화.

-유행 배경:

- 명(明)의 멸망에 따른 조선인들의 민족적 자아의식
- 실학(實學)의 대두
- 우리나라 지리와 산하에 대한 관심
- 지식층의 여유(旅遊)와 기행문학의 유행 등

2. 정선의 진경산수화와 정선파 화가들

정선(鄭敼, 1676-1759)

<금강전도>, 1734년, 59세

금강산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변형과 과장, 필법의 강약, 광선의 대비를 맘껏 구사하여 보는 이의 눈과 가슴을 압도하는 드라마틱한 화면 창출.

부감법으로 일만이천 봉우리들을 내려다 봄.

<만폭동도>

빠른 필치로 화면상에 동감이 일어남.

내금강 계곡의 물소리가 울려퍼지는 듯한 생동감.

<청풍계도> 64세, 간송미술관

백악산 청풍계 안동김씨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의 고택이며 당시 주인은 후손 김시보 백악사단의 집회 장소로 여러 폭의 청풍계가 남아 있음. 고대박물관, 국박 등 드라마틱한 시각 구성, 능숙한 필법, 강렬한 흑백 대비, 적목의 양괴감(量塊感)이 격동적. 연못가의 누각, 초가 정자, 가묘(家廟) 등이 고목 사이사이에 배치.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1740-41)

‘시화상간첩(詩畫相看帖)’ 검재와 사천이 함께 꾸밈.

양천현을 중심으로 한강 상류와 하류의 명승을 그림.

《해악전신첩》 1747년(72세): 이병연 제화시, 홍봉조 대필 제화시(김창흡)

<박연폭도>

대상을 과감히 변형시켜 사실성을 뛰어넘어 곧바로 회화미로 나아간 명작

흑백의 강렬한 대비를 통한 화면상의 울림

<인왕제색도> 76세작,

대상에 충실하면서 박진감을 잡아낸 작품

姜熙彦(1738-1784 이전)

자는 경운(景運), 호는 담拙(澹拙), 관은 감목관(監牧官).

<인왕산도>

한국회화사

-정선의 진경산수화풍 추종하면서 서양화법 가미(수지법, 암석법, 짐법), 하늘 파랗게 칠함.

<사인삼경도(士人三景帖)>

-文·武·藝의 기량을 겨루는 선비들의 습속을 담은 풍속화.

金允謙(1711-1775)

자는 克讓, 호는 眞宰, 관은 察訪. 김창업의 서자.

겸재의 영향을 받아 동국진경에 심취한 화가.

맑은 수목담채의 선염과 붓질, 개성적 조형해석, 구도.

《봉래도권》 1768년, 만57세작

《영남명승첩》

崔北(1712-1786)

-자는 聖器, 有用, 七七, 호는 月城, 星齋, 箕庵, 居其齋, 三奇齋, 毫生館, 방랑, 酒客, 狂生.

-괴팍한 성격, 기이한 행동, 심한 주벽으로 알려졌던 인물.

-김홍도, 이인문, 김득신 등과 교류

<표훈사도>

金應煥(1742-1789)

-조선후기 화원, 자는 永受, 호는 復軒, 擔拙堂, 관은 別提.

-《복헌백화시화합벽첩(復軒白華詩畫合璧帖)》,

“歲壬辰春 擔拙堂爲西湖倣寫 金剛全圖”(1772년 담졸당 김응환이 서호 김홍도에게 방하여 준 금강산전도)

-김응환, 《금강산화첩》: 1778년 정조의 어명을 받고 김홍도와 함께 50여일에 걸쳐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그린 그림.

金碩臣(1758-?)

자는 君翼, 호는 蕉園, 관은 副司果.

조선 후기 화원. 김득신의 동생이며 김응환의 아들.

<도봉도>

3. 개성적 진경산수화

鄭遂榮(1743-1831)

-자는 君芳(君芳), 호는 之又齋.

-정인지(鄭麟趾)의 후손으로 조선후기 대지도학자인 정상기(鄭尙驥)의 증손인 지도학의 명문 집안 출신.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시서화와 기행을 즐기며 지낸 선비화가.

-남종화, 어해, 화조화 외에 진경산수를 좀 더 개성적 문인화풍으로 발전시킴.

-<방자구산수도>

-《한강·임진강 명승도(漢江·臨津江 名勝圖)》

1796년-1797년 여름까지 그린 것. 길이 15미터의 長卷으로 광주를 출발하여 여주, 원주 하류까지 열네 군데의 명승을 담았다. 배를 타고 여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명승을 구도나 화면에 구애됨이 없이 어떤 곳은 길게 어떤 곳은 간략하게 계속해서 그렸다. 사실적인 경물묘

사의 노력이 보임. 그림과 함께 간략한 기행문을 썼다.

강세황(姜世晃, 1713-1791)

《송도기행첩》 1757년 7월에 개성을 여행하면서 명승지의 실경에서 느낀 감동을 그린 진경 산수화. 참신한 구도, 부감법 사용, 밝은 담채, 대담한 생략과 왜곡에 의한 재구성, 서양화 풍의 구사로 주목됨.

《풍악장유첩》, 1788년경

아들 인이 회양부사로 부임하자 그 곳에 머무르다 김홍도, 김응환과 함께 금강산 탐승. 수창시와 유람기, 사의산수화가 겸비된 시서화 함벽첩으로 문인예술의 전형을 이룸.

【참고자료】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0

변영섭, 『표암 강세황 회화 연구』, 일지사, 1988

최완수 외, 『진경시대: 우리 문화의 황금기』, 돌베개, 1998

안휘준, 『한국회화사연구』, 시공사, 2000

유홍준, 『화인열전』, 역사비평사, 2001

홍선표, 『(한국의) 전통 회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최완수, 『겸재 정선』, 현암사, 2009

『한국 역대 서화가 사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